

박종철 열사 관련 자료모음 4 : 1992 - 1995

목차

번호	일시	제목	생산처	페이지
1	1992. 01. 14	'92 총선 승리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 촉구문	투쟁의 활화산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3
2	1992. 01. 14	故 박종철열사 추모 5주기를 맞이하여, 피가 끓는 청년학도의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결의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5
3	1992. 01. 14	부활하라 열사여! 일어서라 이 땅의 민중들이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준비위원회	9
4	1992. 01. 14	박종철 열사의 한을 풀고 92년 민주정부 수립으로 자주, 민주, 통일 쟁취하자!!	민주정부 수립의 한길로 달려가는 민족성대 제 24대 총학생회	13
5	1992. 01. 14	박종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열사의 민주넋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제 3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17
6	1992. 01. 14	고문-구타 수사관행 여전	신문기사 스크랩	21
7	1993. 01. 14	민주열사 박종철 6주기 추모제 및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서울대 총학생회	22
8	1993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관련 언론보도 검색결과		29
9	1995. 01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신문기사 스크랩	40
10	1995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관련인 명단		42



'92총선승리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촉구문

죽음보다 어김없는 믿음이 있기에,

기셨는가 그대여!

꽃같이

그대 쓰러진 곳에 길바람 어그러지고

그대 누운신 자리에 복수화 꽃은 피어

이제

수천 수만의 투쟁의 눈동자로 살아오리라.

그렇다. 새벽 찬바람, 보아주는 이 없이 한중 재로 흩날린 박종철 일사는 민주정취를 외치며 내달리던 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살아왔다. 거짓 웃음과 숨겨진 칼로 시작된 6공화국의 물가폭등과 재벌비호, 실민과 양심수의 양산으로 점철된 5년 학정의 세월! 그러나 굴하지 않고 돌발처럼 일어나 민주와 자주통일로 진군하는 벼랑 승리의 도성에서도 살아왔다. 청년학도와 4천만 민중은 투쟁없이 열사를 부르지 않았으며 전진없이 열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92년! 기어이 미국과 노태우의 장기집권 음모를 파탄내고 4천만의 희망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87년의 한을 풀어 열사를 온전히 실러낼 격돌기의 백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재집권의 기회가 마지막임을 감지한 미-노 일당은 권력 승계를 둘러싼 추악한 집안 싸움을 무마하며 허구적 이데올로기와 통일정책,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금권 공안 선거로 다시 한번 칼날을 들이댈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애국민주 세력은 열사들의 피로 지켜올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깃발미레 단결하여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의 쟁취, 자주통일의 내용을 들이치고 민중 주도의 민주대연합을 실현하여 4천만과 함께 투쟁해야 하며,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분명한 방침과 히니되는 실천으로 노태우-민자당 정권을 버랑 끝으로 밀어부쳐 기필코 승리로 걸실땀을 것이다.

투쟁 속에서 승리의 꽃을 피워온 자랑스런 그 이름 서남총련 7만 5천 청년학도여!

피로 재겨진 투쟁의 역사를 되짚으며 당면한 투쟁과 92년 대격돌의 장에서 최선투에 설 것을 굳게 결의하자!

서남총련 7만 5천 청년학도여! 남북협약서의 철저한 이행을 강제하며 싸워나가자!

그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의지와 투쟁의 성과물인 남북협약서의 채택을 자신의 공적인 뜻이 포장하여 집권연장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노태우 중권의 파렴치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방위비의 증가와 재래식 무기의 증강 배치 등 평화에 역행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한평생 바치신 윤익환 목사님과 임수경 대표 등의 통일인사가 아직도 차가운 감방안에 있다. 더욱이 합의서가 채택되지 며칠이 되지 않아 "이직 이북은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은 존재한다"는 판결문 요지로 전대협 의장님을 비롯한 8인의 간부에게 중형이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자신의 위선의 가면을 스스로 벗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양심수 석방, 실질적인 평화 균축투쟁으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자!

서남총련 7만 5천 청년학도여! 경제침략 내정간섭 전쟁위협 미국 반대의 기치를 들고 싸워나가자!

농업정책의 실패라 대책없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말라죽어가는 농민과 농촌의 현실, 민중생존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과 그 앞에서 무능력하고, 굶질대는 사대 매국적 노태우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가일차게 전개하자! 또한 한반도를 전쟁의 광풍속으로 몰아가는 미제의 음모를 파탄시키자! 역대 미국 정권이 그랬듯이 미-노태우일당의 망동은 민중과 청년학도의 투쟁 속에서 파멸로 치달을 것이다.

서남총련 7만 5천 청년학도여! 위법적인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반대하고 부패정권의 타도를 위해 투쟁하자!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선거의 연기 의도는 총선과 대선을 다시 한번 금권 관권 선거로 치루어

재집권을 이루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최소한 3백억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땀을 정치자금이라 받아먹고도 불우이웃돕기 운운하는 더러운 작태를 보라! 한편으로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고자 가당치도 않은 수작을 보라! 이렇게 법없이 사는 노태우정권의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으로 내달리자!

서남총련 7만 5천 청년학도여! 전국연합의 깃발아래 당면한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

4천만 민중의 희망, 투쟁의 구심인 전국연합! 우리는 전국연합을 92년 민주정부 수립 투쟁에서 진정한 민중의 구심으로 세워가기 위해 단결하자! 첫 힘겨루기가 될 총선에 전국연합의 방침을 철저히 지키며 범민주 연합공천·민중 후보 단일화의 공동강령에 근거하여 민자당의 패배와 민주승리를 일구어가기 위해 책임지고 투쟁해나가자! 지구차원의 총선대책위를 건설해내고 지역으로부터의 승리를 안아오자!

조국의 부름에 청춘을 불사르기에 더욱 자랑찬 서남총련 청년학도는 노도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기세로 펼쳐일어나 위와 같은 결의로 총선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모든 애국민주세력은 전국연합 깃발 아래로 총집결하자.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은 자멸이다. 열사의 혼을 받은 전국연합 깃발을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지켜내고 마침내 민중 속에 뿌리내리게 해야한다.

야당은 그동안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노태우-민자당정권 분쇄투쟁의 한 길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은 민중의 생존과 민주통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에만 눈을 밝히고 있었다. 애국민주세력과 함께 단일한 애오로 투쟁해나감으로써만 진정 야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한 역사속의 교훈을 직시하고 총선에서부터 전국연합과의 연합공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나라의 주인인 4천만 국민은 민주권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단결된 힘으로 노태우-민자당 정권을 단죄해야 한다.

92년은 새해아침 봉화의 붉은 해오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자리에서부터 92년 판갈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미-노 일당의 5년 확정과 재집권의 음모를 갈아엎고 민주정부로 질주하는 청년학도와 4천만 민중의 단결 투쟁의 대오에는 불패의 민주승리, 벅찬 민주정부수립이 안겨올 것이다.

그때 우리! 빛나는 새 조국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자!!!

자주민주통일 진군 48년 1월 14일

투쟁의 활화산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 檢 朴/宗/勉/열/서 추/모 5/주/기를 맞이하여, 피가 끓는 청년학도의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걸음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열시의 뜻을 이어 노태우-민자당 정권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 못다한 6월항쟁, 이제는 승리하리라!

4천만이 단결하여 민자당을 심판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 ■

가톨릭의과대학,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공회신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역사의 뜻을 이어 민주정부 수립의 한걸음으로 진군하자!!

민주와 통일의 선봉장, 애국시민 여러분!!

임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 92년은 87년 이후 온국민의 희망이자, 열망인 민주정부의 원년을 만들고자 구국의 횃불 청년학도는 항상 애국시민 여러분과 투쟁의 대열에서, 생활의 곳곳에서 만날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두환 5공 독재정권 말기의 발악적 공안통치 속에서 박종철열사가 고문살인으로 가신지 벌써 5주기를 맞이합니다.

열사의 한과 뜻다이룬 꿈은 당시 87년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4천만 국민의 가슴에서, 6월항쟁의 거리에서 되살아나 전두환 독재를 꺼꾸러 뜨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열사는 가셨으나 투쟁없이 열사를 부르지 않았고, 역사적 진전없이 열사를 기억하지 않은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사의 죽음과 맞바꾼 6월항쟁의 승리를 기만적인 6.29선언을 통해 무마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협박 선거로 자리에 오른 노태우는 여전히 5공과 다를바 없는 인권말살과 독재정권임을 지난 4년간의 학정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열사의 고문경관들이 6공하에서 특사로 석방된 것을 비롯해 5공의 2배에 달하는 1천여명의 양심수, 여전히 공권력에 의하여 공공연히 고문과 협박, 폭력이 판치는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5월투쟁의 도화선인 강경대 열사를 백주대낮에 구타살인한 것과 김귀정 열사에 대한 타살은 노태우정권의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권말기에 이른 노태우 6공정권은 5공때와 다름없이 장기집권음모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독재정권의 재창출과 선거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가 그 일면이며 독점재벌 정주영의 폭로에서 드러난 정치자금 수수가 부정부패 정권임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의 선거공약조차 파기하며 정권유지에 급급해하는 노태우정권은 87년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권의 말기가 어떠한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천만 민족성원들의 통일의지로 이룩한 남북한 합의서 채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할 것과 통일의 장애막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정권의 4년학정과 독재의 음모를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4천만 국민이며,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과 민주후보 중심의 당선을 중심으로 전국민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민주정부수립의 원년으로 만들시다.

나는 잘했다! 믿어달라~

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무엇을 한다는 소리인지!

-노태우의 연두기자 회견-



지난 1월 10일, 노태우는 연두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크게 경제, 정치일정, 민생파탄, 남북관계, 시민의식고양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제와 정치에서 국민들이 노태우의 파렴치한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경제불안요인은 '과다한 임금인상'과 '일을 게을리하는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우선 노태우자신도 경제안정을 몰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을 '과다한 임금인상'으로 왜곡하고 그 대안으로서 노동자, 농민등 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는 미국을 필두로 한 외세의 경제침략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 협조, 제벌의 땅투기 등으로 인한 물가폭등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권은 '일을 게을리하는 국민에게 있는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해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를 실시한다면 노태우의 6.29선언이 백지화됨으로써 물가폭등과 경제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 물가인정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을 무시하고서라도 국민을 위해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다는데...

노태우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선언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노태우는 선거연기의 핵심적 이유로 4대선거가 한 해에 몰려 사회불안과 물가폭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선거연기선언의 본질적 이유는 민자당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선거를 금권·관권개입으로 치름으로써 통해 치름으로서 장기집권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 동일한 길로 가는 남북합의서 채택을 정권의 안정과 장기집권 실현으로 몰고가려고 하는데...

또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합의서가 체결되고 무역교류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역대 통일민주인사들의 석방이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노태우가 제아무리 통일을 외친다 해도 그것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나 새삼스럽게 노태우의 입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농민의 이익을 위해 7백만 농민의 명줄을 끊겠다는데...

수입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론을 다시 들고 나와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노태우정권이 국민의 편에서 있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정권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노태우정권은 초지일관 장기집권 실현에 혈안이 되었으며 국민의 피와 땀을 조여짜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정권의 인성이라면 4천만의 명줄을 마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위험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천만 국민여러분! 이제 노태우의 장기집권음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태우집권 4년, 미자당 하청 2년의 업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 알기부·기부사등 특압기구로 상연적인 공안정치, 자행-민주압살, 인권탄압-국민의 생명은 날이갈수록 짧아지고...

양심수 5공 7년동안 4천7백명, 6공 4년동안 5천1백명으로 두배 증가
이철규, 강경대, 박항수, 김귀정, 한국원등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 연이어 발생
문익환목사님, 임수경학생, 전대협위원장등에 대한 중형 선고
인생치안 외면하고 민주세력 소탕에 열안, 범죄와의 전쟁

13번의 날치기, 악법의 천국-사라져가는 민주적 권리...

민자당창당 이후 2년동안 국회날치기 13회로 사상 초유 기록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국가보안법 경찰법 개정안, 제주도개발법, 바르게 살기
조직육성법안, 추곡수매등의안 등 법령 개악
국민의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민주법령은 대통령거부권행사

형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물가는 폭등, 민생은 파탄

물가 해마다 40-50% 폭등

말뿐이었던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경제정의 실현은 사라짐

수서사건을 필두로 5공을 능가하는 부정비리사건 속출

5공 당시 80억 흑자이던 국제수지가 110억 이상 적자상태로 전락

재벌비호, 재벌특혜, 부동산 투기 조장,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

말뿐인 통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노정권의 통일정책

-미국을 등에 업은 핵사찰 압력으로 북한 고립화, 긴장고조-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에...

-남한에서 통일운동탄압 - 통일인사는 감옥에, 국가보안법은 건재

-남북합의서 등 민중들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정권안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

미국의 요구라면 쓸개라도 빼줄 정권입니다.

-가중되는 시장개방압력에 우리 국민의 이익은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줘 경제는 미국에 더욱 예측되고 국내 경제는 파탄

-시장개방 등의 대가로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 약속 받음

-골목적인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INS) 체결

이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노태우-민자당정권의 학정을 용서할수 없으며, 더이
노태우-민자당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자당 창당 2주기가 되는 1월
1일 전 국민이 떨쳐나 노태우-민자당 정권을 심판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패배
불화살을 안겨줍시다.

더이상 모실겁시다! 노태우-민자당 정권 끝지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부활하라 열사여!
일어서라 이땅의 민중들이여!!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준비위원회 (☎ 588-9718)

박종철 열사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5년전 폭력정권의 살인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박종철 열사의 5주기 추모일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전국민적인 분노의 함성으로 이어져 서슬퍼런 5공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굴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보통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 내집마련은 커녕 매년 전세값 올려주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작 과소비를 삼가고 열심히 일해야 할 노태우정권과 독점재벌들은 수십억 빌라에 호화 별장에 수천만이 넘는 가구를 들여놓고 무너진 농민의 가슴위에 골프장을 지어 평일에도 골프채를 휘휘 휘두르며 딸자식같은 어린 소녀들을 끼고 돌아다니면서도 연일 신문·방송을 통해 '경제위기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입나발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디로 사라지고 토지공개념은 또 어디로 꺼져버렸는지 땅장사 증권장사로 수백·수천억씩 챙기는 자들이 있기에 평생을 뼈빠지게 벌어서 축해도 내집한칸 마련하기 어려운 우리 민중들의 등허리는 점점더 굽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척결해야 할 노태우정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매년 수백억씩 정치자금을 헌납받고, 제2의 을사보호조약인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이 나라를 반영구적 미군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수량과 가격을 동결시켜 둔채 쌀수입개방문을 활짝 열어 7백만 농민의 가슴에 못을 치고 4천만 국민의 목줄을 미국에 저당 잡혀 놓았습니다.

재벌만 살찌우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현지도민의 거센 항의를 일으키고 끝내 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전국민의 생존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핵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공청회 한번 없이 음모적으로 선정, 이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폭력정권

그뿐만이 아닙니다.

92년 1월 7일 노정권이 올해의 첫사업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 한칸 없는 신정 2동 주민에 대한 살인 철거 강행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시 국무총리의 입으로 '동절기 강제철거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소한도 지난 이 엄동설한에 철거깡패를 동원하여 싸늘이 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당장 잠잘곳 없는 철거민들이 항의하자 철거깡패들이 몰려들어 몽둥이로 두들겨 패 실신시키고 실신한 부녀자 5명을 발가벗겨 온몸에 똥칠하고 대로상에서 끌고 다니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우리의 이웃을 차디찬 맨 땅에 내몰아 두들겨 패고 발가벗겨 온몸에 똥칠을 하는 이정권이 진정 우리의 정권입니까?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열사, 쇠파이프로 맞아 죽은 강경대열사의 피가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을 살해한 경관들은 풀려나고 두열사의 아버님들이 감옥에 갇혀 울분을 삭여야하는 이 기막힌 세상이 진정 우리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힘으로 민자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을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은 6·29라는 농간에 속아 5년을 고통속에 지내왔습니다.

92년은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6·29와 같은 농간에 속아서 안됩니다.

이 정권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3천명이 넘는 양심수를 생산하고 민중의 생존을 압살하고 이 땅을 미국에 팔아먹은 정권, 농민의 가슴에 못을 치며 집없는 철거민에게 발가벗겨 똥칠하는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항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1천만 서울 시민이 앞장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고 박종철열사 5주기 추모대회

- 일시 : 1992년 1월 14일(화요일) 오후 5시
- 장소 : 기독교회관(종로5가)
- 주관 : 박종철 기념사업회,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서울대총학생회
- 주최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대 대학원 자치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박노해 석방대책위원회
- 후원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준비위원회, 민중당, 민주당

박종철 열사의 한을 풀고
92년 민주정부수립으로
자주, 민주, 통일 쟁취하자!!



민주정부 수립의 한길로 달려가는
민족성대 제24대 총학생회

오늘은 고 박종철 열사 추모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살인, 고문정치에 의한 박 열사의 죽음은 87년 전 국민적 민주화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전두환정권을 끝장내었으나 기만적인 6. 29선언으로 노태우가 등장하고 오늘까지 그 학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을 심판하고 희망찬 민주정부수립의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기 위한 92년을 맞아 노정권 집권 4년 민자당 학정 2년여의 세월을 되짚어봅시다.

노태우 집권 4년, 민자당 학정 2년의
정치행각은 반민주, 반민중적일 뿐이다.

공안통치

- * 양심수 -- 5공 7년의 4천7백명에 비해 6공 4년동안 5천1백명 두배증가
- * 치사사건 -- 이철규, 강경대, 김귀정, 박창수, 한국원씨 총기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연이은 치사사건
- * 범죄와의 전쟁선포 -- 민생치안보다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
- * 치안부재 -- 범죄천국으로 불안과 공포의 생활

국회 날치기 통과

민자당 창당 이후 2년동안 국회날치기 13회 -- 사상 초유 기록
날치기 주요법령 --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 제주도개발법, 추곡수매동의안등

경제 / 물가

- * 경제정책 실패로 물가 해마다 40~50%폭등 -- 서민생계 파탄지경
- * 임금인상 억제, 저곡가 정책으로 경제난 국민들에게 전가
- *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폐기
미국의 시잔개방압력에 굴복 -- 예측경제 신화, 경제파탄
- * 국제수지 110억이상 적자

대북통일정책

- * 민주세력의 통일운동 탄압 -- 국가보안법 유지, 개악. 통일인사는 감옥에 가둠
- * 대북 통일정책을 정권안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 남북합의서가 채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있다
- * 비핵화선언, 핵부제선언의 이면 --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존재,
주한미군 철수 거부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 위대한 보통사람' 노태우의 집권기간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만을 강요할 뿐 그 어떤 치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월10일 있었던 노태우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는 경제안정, 정치일정, 남북관계 민생치안 등에 언급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뿐 그 어떤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에서는 ' 안정' 을 이유로 임금인상억제 등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입으로 국내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경유착에 의한 망투기 등으로 인한 물가폭등은 오히려 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태우는 또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불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금권, 관권선거로 집권여다에 유리하게 총선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남북합의서가 합의된 마당에도 이복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통일인사 석방에 관한 언급을 전혀하지 않는 반통일적 작태를 다시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부분 또한 정주영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해명없이 국민을 속이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 불우이웃 돕기' ' 운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민자당 심판의 장으로 !!

조금있으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4대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이번 선거는 노태우와 민자당을 기어이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민주세력이 총단결하고 전국민적으로 민자당 심판의 결의로 반드시 올해에는 참다운 민주주의 꽃을 피워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87년 민주화 대투쟁의 화신,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안기부 형사들에 의해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고서 숨진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입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박종철 군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이 알려졌지만 아직 그 사건의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철 군의 고문살인의 주범인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얼마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문 살인의 배후 조종자, 실질적인 주범인 5공 정권은 고스란히 6공 정권으로 이양되었고 5공 때보다 더 심한 인권 침해가 6공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살해된 강경대 군,

백골단의 과잉 진압으로 짓이겨져 간 김귀정 양,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엔 무죄라는 형사법 상의 상례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 운동권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해 단지 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유서 대필 사건의 누명을 쓰게된 강기훈 씨 등.

오늘은 정권의 폭압 속에 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 열사의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열사의 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고문 경관의 상징인 이근안을 하루 빨리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6공 정권의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이에 대해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들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속에 1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갑속에 1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체감물가(=소위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는 약 33%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이곳 저곳에서 난리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급한 모양입니다. 지난 연두회견에서는 '정치에서는 손을 떼고 온국민의 관심사인 경제와 통일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을 대통령 당사자가 할 정도이니깐요

잠시 그들이 내어놓고 있는 경제대책을 살펴봅시다. -- 산업합리화 / 산업구조 조정 정책 / 물가상승의 원인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 / 하나의 대책 이후에 또다른 대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경제문제를 빌미로 한 선거연기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잘알아듣지도 못할 찬란한 논리들로 포장된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치솟고 있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국민들의 과소비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1억짜리 자가용타고 건너는 한강을 3억짜리 지하철타고 건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과소비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소비할 능력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천만원짜리 모피코트는 우리집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인데말입니다.

그 원인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표현대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했던 87년 보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었다는 91년의 경제가 더욱 악화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경제위기는 기술투자액보다도 1년 접대비가 더 많은 기업들의 경영상의 게으름,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모습을 오히려 정치자금이나 3백억씩 받으면서 눈감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정권과 기업의 책임인 것입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와 불안정해지는 경제속에서 우리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에서 나서는 여러문제들의 정치적 해결의 장이 있는 올해에 과연 노태우 정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할 노력을 보일 것인가하며 그의 연두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그러나 새해들어 국민의 가장 관심사였던 노태우의 연두기자 회견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그들내부의 추악한 권력싸움에 대한 애매모호한 처리와 지자체의 연기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경제문제등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문제를 핑계로 87년 자신의 약속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스스로 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뻔뻔하게 연기해버린 것입니다.

노태우는 선거연기의 이유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일까요?

실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노태우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실정의 책임을 다른곳에 교묘하게 전가하면서 선거연기라는 다른 이익까지 챙기겠다는 흥계가 있다는 혐의가 간다면 이것은 지나친 추측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면 그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진정 노태우의 의도는 대통령선거 때문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선거를 대선이전에 거친다면 지방행정체계의 장악이 예전과 같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관권, 행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요? 그러면 돈안쓰는 공명선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법을 어

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이때에 비치는 한줌의 햇살 -- 통일대통령 노태우!

'경제에는 무능해도 외교, 통일에는 재능을 지닌' 노태우 대통령! 그가 얼마전에 한 건 했습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죠.

지난 12월 11일 제 1차 본회담을 시작으로 출발했던 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마라톤회담 끝에 탄생한 남북 합의서.

이것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남북사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합의서의 즉각적인 실현이야말로 우리의 오랜 숙원인 통일의 지름길이며 통

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합의서의 조속한 완전실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가 또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월 유신의 명분은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 아니었던가요? 또다시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문제가, 파탄난 국내 경제와 민자당내분당의 정치적 위기를 굴절시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자신의 정치 무능력에서 조금이라도 이동시켜 이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한번 정권을 잡으려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노정권은 이 합의서를 즉각 실현해야 할것이며 이것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노태우씨!

합의서 한편으로 당신의 무능력한 국내정치를 만회하려 하지 마십시오.

* * *

오늘은 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87년은 정권의 교체를 바로 앞둔 시기였습니다. 당시,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세력을 혈안이 되어 탄압하던 전두환정권, 그리고 그의 적자인 노태우와 그의 애첩(?) 정주영 ... 그리고 87년 민주화 투쟁의 적자인 민중운동세력, 그들이 다시한번 권력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또다시 선거,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공정권은 자신이 권력을 잡은 87년 이후 5년간 거둬들인 실정들속에서 다시한번 금권, 관권선거를 통해 재집권을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당은 조금 공명한 선거', '야당은 많이 공명한 선거' 를 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6공에 대한 심판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있는 것은 '단결' 밖에 없습니다!

범민주진영의 단결로 범민주세력의 연합공천을 이루어내어 범민주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는것!

그리고 그 힘 으로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두어 이땅 민주화를 안아오는 것!

그것이 박종철 열사를 떠나보낸지 5주기가 되는 오늘 우리들 산자의 결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사의 민주넛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제 3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민주열사 박종철 6주기 추모제 및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

주최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서울대총학생회

후원 : 전국연합인권위원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대대학원 자치회 협의회

대회진행 순서

- 1부** 박종철열사 6주기 추모행사
1. 개회사 및 회장인사
 2. 열사 약력보고
 3. 추모시
 4. 추모사
 5. 추모의 노래
- 2부**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
1. 양심수 문제와 민주주의
 2. 6공화국과 양심수

박종철 열사 약력

- ① 1964년 4월 1일 부산에서 아버님 박정기씨와 어머님 정치순 여사의 사이에서 2남1녀의 막내로 태어남
- ② 부산에서 졸본 학교를 다니다가 1983년 2월 부산 해광고를 졸업
- ③ 1년 재수후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언어학과 입학, 입학후 언어학과 1학년 대표로 선출됨
- ④ 19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사당동 가두시위에서 동료들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연행됨. 구류처분을 받음. 정권의 친미 종속성을 온몸으로 확인
- ⑤ 1986년 언어학과내에 있는 과학회의 학회장으로 선출됨
- ⑥ 1986년 4월 신당동에서 벌어진 노학연대 가두시위에서도 끝까지 남아 싸우다가 연행되어 구속됨. 이 당시 요구는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화되어 있던 청계피복노조의 합법화였다. 열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주동으로 몰릴 만큼 열심히 싸웠던 것은 평소 전태일 동지를 흠모하고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하려던 의지의 소산이다.
- ⑦ 1986년 10월 집행유예로 출소. 출소 후에도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을 따뜻하게 보살핌
- ⑧ 1987년 1월 14일 0시경 치안본부 대공본실에 참고인으로 연행됨. 연행이유는 86년 12월경 하루 묶고 간 적이 있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캐려는 것이었음.
- ⑨ 참고인이건 무엇이건 아랑곳없이 자행되는 치안본부 고문기술자들의 물고문 전기고문 모진 구타에 견디며 동지와 민중운동, 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키다가 87년 1월 14일 장렬하게 산화

열사는 가셨지만 그의 투쟁정신은 온 국민 특히 그의 동지 그리고 선후배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또한 그가 지키고자 했던 민중생존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민족지주 민족통일의 숭고한 대의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 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 국민을 살려내었습니다. 기쁜 일에 마음껏 기뻐하고 슬픈일에 한없이 슬퍼하며 분노할 일에 분기탱천하여 일어서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는 분노할 일 앞에서조차 마냥 죽어지내던 우리 국민의 감추어진 분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열사는 국민의 분노로 되살아났습니다. 6월 항쟁의 함성으로 6월의 승리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간단히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1987년 2월 7일 전국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 ② 1987년 3월 3일 열사의 49제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 ③ 1987년 5월 18일 김승훈 신부가 미사도중 고문자가 더 있으며 고문지시 등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폭로(여기에 전두환의 4·13호헌선언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짐)
- ④ 1987년 6월 10일 6월민주항쟁의 불꽃으로 부활함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 오르는 분노와 주먹을 쥐다

차가운 날
한 뼉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 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 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 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네게 약속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하리라

뻘뻘한 너를 으스스하게 껴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
이 땅의 착취
끝날 줄 모르는 억압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장내리라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뻘뻘할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 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 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에서 배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 날
비로소 그 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네게 보내주리라

언어학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박종철 열사에게 바친 시

박종철 열사 6주기를 추모하며

세상에 나온 후 눈물흘리며 조국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많은 열사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열사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독재에 의해 얼마나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가를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6공화국은 고문근절과 인권상황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은 쇠파이프에 총기난사에 계속되는 죽음행렬일 뿐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오직 한가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정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문할 것인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열사의 죽음 이후로도 소리없는 보이지 않는 고문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열사의 죽음이 87년 항쟁의 불씨가 되고 독재타도의 함성으로 타올랐을 때 많은 선배들은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불끈 쥔 채 고문없는 사회, 민주주의가 꿈틀거리는 사회를 위해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비록 민주정부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후 5년. 열사의 후예들은 더욱 큰 힘과 패기로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많은 희망의 터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다시한번의 독재와 민주의 한판 격돌에서 우리들은 아쉬운 패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사에게 가장 죄스러운 것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갈망했던 민주정부를 굳게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쓰라린 가슴에 따뜻한 기쁨을 안겨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정의는 이제 꺾었다며 많은 이들이 망연자색해 하고 있고 열사를 떠올리기 죄스러워 한숨만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사여!

열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분의 삶을 이어간 관악청년들은 쉽게 꺾이며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조건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포기하는 것은 열사의 정신이 아니며 일시적 패배를 교훈삼아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염원, 민주정부와 민족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 모든 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의 전원석방! 이 모두는 산자들의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

영생하는 열사의 정신이 곳곳한 관악청년의 삶을 일구기에 가슴 뜨거운 결의를 모아 열사의 영전앞에 드립니다.

주모의 노래

그날이 오면



한 밤 외침-은-아 니리 오 텐 고통 다한 후 에 내



행 제빛-나는- 두 눈 에 뜨 거운눈 물 들 한



줄 기강-물로 풀 - 러 고 된 밤방울함께 흘 러 드



넋 은평-파의-바 다 에 정 의의물 걸 넘- 치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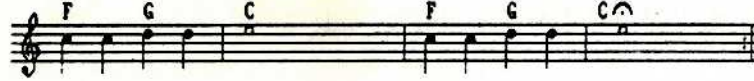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내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내



행 제그 리운 일 굴 들 그 아 픈추 억 도 아-
행 제그 리운 일 굴 들 그 아 픈추 억 도 아-



함 았 던 내- 젊-음-도 헛 된 꿈 이- 아니었으리
과 맺 힌 그- 기-다짐도 헛 된 꿈 이- 아니었으리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민주열사 박종철 6주기 추모제 기획안

1. 행사의 의의

▷87년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죽음으로 일구어내어 6월항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열사를, 92년 대선을 마친 시점에서 추모.

▷92년 선거로 더욱 정착되어가는 양상을 보인 민주주의적 틀을 평가한 위에서, 아직도 미진한 민주적 제 제도의 실현을 다시금 촉구하며, 또 기존의 군권 관권에 대신하여 민중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금권에 맞서 ~~변종철 생존권을 지킬 격호를 다짐.~~

▷탈 이념의 시대 통일 추구의 시대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문살인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 완결과 민사소송의 신속한 완결 촉구.

2. 행사개요

▷옥내 추모행사

▷표어 참배

3. 행사관련 실무 준비

총괄 ----- 회장 및 운영위원단

실무 총괄 ---- 박종운

실무진 ----- 김찬훈 김태호 유병순 기타 선후배 동료들

4. 추모행사의 내용과 그 준비

▷원칙 - 간첩단 사건 취급은 신중.

장기포 씨 등의 확대 연루자에 대한 성토는 고려

▷옥내 추모 행사의 연사 위촉

▷신문광고에 관하여

▷행사의 공동주최에 관하여

▷마석 모란공원 참배 차량

▷경비조달

1991년 6월 29일 17:00 10월 10일 1991년 6월 29일 17:00 <김도형>

있따라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에서는 불교인권위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주최로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65) 씨 등 가족과 지선·진관 스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종철 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박종철 열사 6주기 추모시를 쓴다고 /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생 각해 보니 / 우리 민중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 사람세상 만드는 데 나서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을 처연하게 그린 진관 스님의 추모시가 낭독되는 동안 화면계속(Y/N)?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그의 죽음의 뜻이 자꾸만 잊혀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와 민가협 등의 주최로 '박종철 열사 6주기 추모식 및 양심수석방촉구 대회'가 열리는 등 경찰의 모진 물고문으로 비명에 숨져간 박씨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는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 박씨는 여느해보다도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지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부정' 때문만은 아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5공 철권통치 붕괴의 큰 계기가 됐던 박씨의 처참한 죽음의 뜻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박종철 인권회관' 건립은 고사하고 박종철기념사업회는 2년전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돼 연락사무실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90년 7월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일부 받은 7천여만원과 부산 집을 팔아 마련한 4천여만원을 보태 마련했던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30평짜리 박종철인권회관 건립터도 건립기금 부족으로 올 6~7월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박씨는 밝혔다.

박씨는 그러나 마냥 쓸쓸해하지는 않는다. 세월의 흐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한의 응어리를 토해내면서도 그는 아들의 못다한 꿈인 '민주세상'을 이야기했다.

"현 정부는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몰래 가석방시키면서 갇혀 있는 화면계속(Y/N)?

수많은 양심수는 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죽어간 1백50여명의 명예회복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30년 만의 문민정부라는 새 정부가 말 그대로 문민정부가 되도록 싸워나갈 작정입니다." <김도형 기자>

【0014】 박종철군 사건관련자 어디서 무엇하나

동아일보 93.01.15 22면 (사회) 기획·연재 2,687자 사

◎고문은폐 강민창·박처원씨 재판 계류중 / 검찰수뇌 서동권·정구영씨 6공서 요직 / 주임검사 안상수씨 「인권변호사」로 활동

「87년 6월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군 (사망당시 21세·서울대 언어학과 3년)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지 14일로 만6년이 됐다.

전국민을 분노케해 민주화대열에 나서게한 이 사건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축소조작한 경찰간부들에 대한 최종판결이 사건발생 6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들은 그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다.

2 061 23/9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1 681 22/9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1 281 11/9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2 6/9 01 180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고문경찰관<

고문을 총지휘한 조한경경위 (당시계급·이하같은·47)와 박군의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경사 (36)는 사건발생 5일만인 87년 1월 19일 고문치사혐의로 구속됐다.

조 경위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화면계속(Y/N)?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고문경관중 유일하게 현재 복역중이다.

강 경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복역중 지난해 7월 형기만료를 2년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박군의 양팔을 붙잡은 황정웅경위 (47)와 반금근경장 (50), 박군의 상체를 욕조로 숙이게한 이정호경장 (35)은 87년 5월 21일 2차로 추가구속됐다.

그후 황 경위는 징역 5년, 심 경장은 징역 6년, 이 경장은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황 경위는 90년 12월 24일 형기만료를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으며 반 경장도 형기만료를 1년5개월 남겨놓고 91년 12월 가석방됐다.

이 경장은 90년 5월 만기출소했다. 이들은 당시 모두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5과2계 소속이었다.

▷은폐조작 경찰관<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씨 (60)는 사건발생 8일만인 87년 1월 21일 인책사임됐다.

강씨는 1년뒤인 88년 1월 15일 박군이 물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검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황적준씨 (48)를 치안본부장실로 불러 부검소견서를 「단순 쇼크사」로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당시 「업보로 알고 수양하겠다」고 말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곧 풀려났다.

화면계속(Y/N)?

강씨는 90년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1년 12월 대법원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강씨는 이 사건이후 일절활동을 중지했는데 최근 친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화번호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을 정도로 노출을 꺼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후임으로 치안본부장이 된 이영창씨 (58)는 재임기간중 고문경찰관 축소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4개월만인 87년 5월 27일 사임했다.

이씨는 은폐축소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지만 이를 부인했다.

그는 현재 민자당소속 국회의원이다.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5차장은 조 경위 등에게 5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등 은폐축소를 주도해 유정방 박원택경정과 함께 87년 5월 29일 범인도피혐의로 구속됐다.

유 경정은 조 경위 등에게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권유했으며 박 경정은 허위사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박 차장 등은 구속 4달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아직까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박 차장은 경찰청 보안간부연구소의 사무실을 빌려 개인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다.
화면계속(Y/N)?

이 연구소는 공산주의비교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

검찰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87년 5월18일)가 있기 전 조 경위와 강 경사 외에도 고문가담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수뇌부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으나 6공들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기도 했다.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은 87년 5월 축소조작사건이 터진 뒤 10일 만에 수사미흡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나 89년 7월 안기부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노태우대통령의 정치특보로 있다.

정구영 당시 서울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좌천」됐다 6공들이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거쳐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안상수씨(48)는 춘천지검으로 전보되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개업한 뒤 88년 1월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축소조작사실을 폭로했다.

안씨는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4, 5차례나 조사 및 공소유지전략을 담은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당시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87년 2월 조 경위 등이 수감돼있는 영등포교도소를 방문, 간접적인 사건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의례적인 교도소순시』라며 부인했고 87년 5월 서 검찰총장과 함께 사임했다.

▷기타<

화면계속(Y/N)?

박군이 물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한 중앙대의대 부속용산병원의사 오연상씨(38)는 현재 중앙대 의대교수로 재직중이며 지난해 10월 영국으로 1년간의 연수를 떠났다.

강민창씨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록한 일기장을 공개했던 부검의 황적준씨는 고려대 의대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이달초 미국 국립의료원으로 6개월간 연수를 떠났다.

87년 5월 경찰의 은폐축소사실을 폭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신부는 왕십리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예루살렘 성지순례중이다. <하준우>

명령(U상위,E종료)?d p3 16-21, 23-29

[0016]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다니엘스 (인터뷰)

동아일보 93.01.17 02면 (종합) 인터뷰 1,032자 사

◎ “한국도 외국 인권상황 관심 가질때” /북한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한국은 인권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유엔인권 협약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스(46)는 『한국도 유엔인권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회원 가입자격을 실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내한한 다니엘스는 『앰네스티는 70년대부터 한국내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회원들이 탄원편지를 보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면서 『1

. 입력일.....2

2=920501:920509

사용예) 92년5월1일부터, 92년5월9일까지 컴퓨터관련 자료검색은?
검색식==> 컴퓨터 * 2=920501:920509 라고 입력합니다.

도움말(H) 상위메뉴(M) 관련단어보기(E 검색어) 검색항목열람(DI) 검색식출력(EX)

검색식==> 박처원 * 2=930225:930228

.... 지금 검색 중입니다.

검색을 중단하실려면 Ctrl-C를 누르시오.

지금까지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건수 검색식

결과1 1 박처원 * 2=930225:930228

아래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1. 검색된 결과의 제목 및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L 결과번호)
2. 최종검색결과와 AND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3. 최종검색결과와 OR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4. 특정 결과번호부터 검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C 결과번호)
5.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S 또는 Q)
6. 명령어 방식으로 검색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선택> 1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2:33 자료량 :1 건

검색식 :: 박처원 * 2=930225:930228

번호 날짜 제 목

1 02/26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박처원씨등 3명 집유-서울고법 선고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1

번호 : 1/1

입력일 : 93/02/26 19:02:31

자료량 :25줄

제목 :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박처원씨등 3명 점유-서울고법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6)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54),전 대공수사2단 5과장 2계장 박원택(52)피고인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조한경경위 등이 검찰조사에서 '박처원피고인등이 범인을 축소,은폐,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 할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박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다음페이지(리턴키)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 인정된다"며 " 따라서 조경위 등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라도 검찰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당시 박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에 의해 물고문을 당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고문에 가담한 경관을 2명으로 축소,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발행일 : 93년2월26일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앞페이지(B) 다음자료(N) 앞자료(P) 목록열람(L)

선택> m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2:58 자료량 :1 건

검색식 :: 박처원 * 2=930225:930228

번호 날짜 제목

1 02/26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박처원씨등 3명 점유-서울고법 선고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m

번호 건수 검색식

결과1 1 강민창 * 2=930402

아래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1. 검색된 결과의 제목 및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L 결과번호)
2. 최종검색결과와 AND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3. 최종검색결과와 OR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4. 특정 결과번호부터 검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C 결과번호)
5.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S 또는 Q)
6. 명령어 방식으로 검색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선택> 1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3:52 자료량 :1 건

검색식 :: 강민창 * 2=930402

번호 날짜 제 목

1 04/02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집행유예 선고-서울고법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1

번호 : 1/1

입력일 : 93/04/02 11:53:49

자료량 :31줄

제목 :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집행유예 선고-서울고법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과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 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관련경관 4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6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1심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강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은 박군의 사인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도 고문경관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는등 수사책임을 맡은 경찰의 총수로서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피고인이 당시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인을 쇼크사로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더

라도 부검의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지지

다음페이지(리턴키)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
않은 점에 비추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
죄를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87년 1월14일 박군의 물고문치사 사실을 보고받
고도 이같은 사실이 폭로되기 전인 같은달 17일 오후 4시까지
수사착수에 나서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당시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5),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54),동
2계장 박원택(54) 피고인등 3명과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91년12월27
일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파기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강피고인은 재항소심 선고직후 "상고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박피고인등 나머지 3명이 이미 2월
26일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 93년4월2일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앞페이지(B) 다음자료(N) 앞자료(P) 목록열람(L)

선택> m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4:59 자료량 :1 건

검색식 :: 강민창 * 2=930402

번호 날짜 제목

1 04/02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집행유예 선고-서울고법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s

JOINS 일반,경제속보(JA) 중앙일보사(02-7515-034)

찾고자하는 자료와 관련된 단어나 검색식을 입력하십시오.

*특정항목을 지정(번호)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목구성 및 사용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명	번호	사용예
-----	----	-----

결과1 5 고문 * 2=930710:930720

아래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1. 검색된 결과의 제목 및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L 결과번호)
2. 최종검색결과와 AND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3. 최종검색결과와 OR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4. 특정 결과번호부터 검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C 결과번호)
5.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S 또는 Q)
6. 명령어 방식으로 검색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선택> 1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6:11 자료량 :5 건

검색식 :: 고문 * 2=930710:930720

번호 날짜 제 목

- 1 07/19 5.18피해자 보상신청 낸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 미망인
- 2 07/15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화천연쇄살인용의자 김씨 주장
- 3 07/15 전 전남경찰국장 5.18피해 신고
- 4 07/14 고 박종철군 유가족에 1억7천여만원 연대배상 판결-고법
- 5 07/10 중국 최고경영자들,경총 초청으로 방한 계획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4

번호 : 4/5

입력일 : 93/07/14 18:20:32

자료량 :33줄

제목 : 고 박종철군 유가족에 1억7천여만원 연대배상 판결-고법

87년 고문치사사건으로 숨진 박종철군 유가족에게 1심보다 4천5백여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문 경관과 국가,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당시 경찰수뇌부가 함께 배상하라는 항소심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부산시사하구괴정동)등 유가족 5명이 국가와 고문경관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군을 숨지게 한 당시 치안본부 대공3부5과2계 경위 황정웅등 경관 5명은 불법행위로 인한 유가족의 재산상 손해및 위자료등을 1억4천7백여만원을 국가와 연대,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치안감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박치원 등 경찰간부 3명은 위자료 1천4백만원을, 경찰총수로서 피고들과

다음페이지(리턴키)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위자료 1천4백만원을 각각 국가와 연대하여 원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 부모를 사건 다음날 대공분실로 불러 노후대책등 명목으로 9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고문치사사실을 숨긴채 박군이 불의의 사고로 변사한데 대한 위로금 명목이었던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무관하다"면서 "가혹치사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경관과 치사행위를 축소조작하려 한 경찰간부 및 부검의에게 허위감정서를 요구한 경찰총수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황 전경위등 5명은 87년1월5일 당시 서울대 인문대언어학과 3년생 박군을 소위 "서울대민추위"사건 참고인으로 서울용산구갈월동 치안본부대공2부 건물로 연행조사하다 물고문과 폭행으로 박군을 숨지게 했으며 박 전치안감등 3명은 경관 5명의 물고문사실이 밝혀지자 이중 3명의 고문가담사실을 은폐토록 지시했었다.

발행일 : 93년7월14일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앞페이지(B) 다음자료(N) 앞자료(P) 목록열람(L)

선택> m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6:58 자료량 :5 건

검색식 :: 고문 * 2=930710;930720

번호 날짜 제목

- 1 07/19 5.18피해자 보상신청 낸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 미망인
- 2 07/15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화천연쇄살인용의자 김씨 주장
- 3 07/15 전 전남경찰국장 5.18피해 신고
- 4 07/14 고 박종철군 유가족에 1억7천여만원 연대배상 판결-고법
- 5 07/10 중국 최고경영자들,경총 초청으로 방한 계획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s

JOINS 일반,경제속보(JA)

중앙일보사(02-7515-034)

검색을 중단하실려면 Ctrl-C를 누르시오.

지금까지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진수 검색식

결과1 1 강민창 * 2=930720:930730

아래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1. 검색된 결과의 제목 및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L 결과번호)
2. 최종검색결과와 AND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3. 최종검색결과와 OR 연산을 하고자 할 경우
4. 특정 결과번호부터 검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C 결과번호)
5.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할 경우 (S 또는 Q)
6. 명령어 방식으로 검색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선택> 1

JOINS 일반,경제속보(JA) 현재시각: 95/01/14 07:08:00 자료량 :1 건

검색식 :: 강민창 * 2=930720:930730

번호 날짜 제 목

1 07/27 대법원,박종철군 고문치사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유죄 확정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목록열람(L) 연속읽기(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선택> 1

번호 : 1/1

입력일 : 93/07/27 17:37:14

자료량 :25줄

제목 : 대법원,박종철군 고문치사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전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88년 2월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3월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90년 8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다시 91년12

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기 까지 기소후 5년5개월여만에 종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강피고인은 당시 지안본부장으로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전

다음페이지(리턴키)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

혀 내리지 않았으며 물고문에 의한 사망사실을 알았음에도 박군의 사인을 끝까지 심장쇼크사로 은폐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전치안본부장은 지난 87년 1월 15일 박군이 '정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황적준 법의학과장의 보고를 받고도 당시 박군 수사담당 경관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지않고 심장쇼크사로 은폐한 혐의로 지난 88년2월 구속기소됐다.

발행일 : 93년7월27일

검색(번호)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기타(Z) 종료(X,BYE)
앞페이지(B) 다음자료(N) 앞자료(P) 목록열람(L)

선택>

박종철씨 고문 주연·조연 아직 건재

구속 경찰관 8명 풀려나고 조한경경위만 수감중

권태호 기자

14일은 지난 87년 경찰의 고문에 의해 숨져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됐던 박종철(당시 21·서울대 언어학과3)씨 사건이 일어난 지 만 8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건으로 사회가 큰 변화를 겪은 가운데 당시 박씨를 숨지게 한 고문사건의 주연과 조연들, 고문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직 인사들,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야만적인 고문과 은폐·축소 사실을 용감하게 폭로해 시대의 양심을 지켜낸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고문사실이 확인돼 구속된 경찰관 등 9명 가운데 현재 수감중인 사람은 고문을 총지휘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안양

교도소에 있는 조한경 경위 1명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석방됐다.

그나마도 3~8년형을 선고받은 고문경관 4명 가운데 3년형을 선고받은 이정호 경장은 형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지만 나머지 3명은 90~92년 사이에 가석방됐다.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62)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있다.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5차장은 구속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나와 개인연구소를 운영하다 현재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뒤를 이어 치안본부장을 맡아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축소발표한 사실이 밝혀져 4개월 만에 사임한 이영창(64)씨는 그 후 주택공사 이사장을 거쳐 현재 민자당 국회의원(경산·청도)으

로 변신해 있다.

검찰의 은폐축소 사실을 폭로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승훈 신부는 여의도성당 주임신부로 있으면서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서 사고 1년 뒤인 88년 1월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축소 조작 사실을 폭로한 안상수(49)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박종철 기념사업회 의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를 연 당시 중앙대 의대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40)씨는 현재 중앙대 의대 내과 교수로, 강민창씨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한 황적준(50)씨는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종철씨 8주기 추도식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회장 김승훈 신부)는 14일 박씨의 8주기를 맞아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군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도식을 가진 데 이어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김승훈 신부와 안상수 변호사를 초청해 기념강연회를 열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오는 6월 박종철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윤인 기자

故 박종철 열사 8기 추모식

기념사업 정부차원서 열어야

박종철씨에 대한 8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이 지난 14일 오후 3시 홍사단 강당에서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신창균 전국연합교문, 김승훈 기념사업회장, 유가협, 민가협 어머니, 재야인사 및 학생 등 1백 50명이 참석한 이날, 참석자들은 8년전 교문으로 희생된 박종철씨의 뜻을 기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부 기념강연에서 김승훈(여의도 성당 주임신부)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문의 피해자가 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것은 우리를 고무시킨다"고 밝히고, 그러나 "협약의 핵심적 내용인 두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심의를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 "교문이 근절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넋을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죽어간 이들을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교문이 없는 사회,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또한 국가

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문치사사건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는 "당시 부검을 하자마자 박군이 물고문을 당하던 중 육조직에 목이 눌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당혹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당시 교문치사 은폐, 조작사실을 재야세력이 은인이 되어 이를 폭로함으로써 이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종철기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전개할 것과 정부가 하기전이라도 재야

세력이 모금운동을 벌여서라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는 재야인사와 학생 등 약 1백명의 추모객이 모여 그의 뜻을 기렸다.

한편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연말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속적인 반고문운동의 전개, 박종철열사 추모관의 건립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회원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인권교육 절실하다”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교문방지 협약에 정부가 가입하게 됐다.

△남매 간첩조작등 프락치에 의한 그리고 교문에 의한 조작 사건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또 부산 경찰서에서 일어난 교문사건등을 보면 아직 광범위한 교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교문금지 대책과 가입민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길이다.

-교문을 없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한 교문을 없애지지 않는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고문을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도 이근안을 잡지 못하는 마당에 이같은 일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을 지키려는 자각에 눈여겨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명 : 강민창 (姜玟昌) KANG,MIN-CHANG
본관 : 진주
원적 : 경북 안동군
본적 : 경북 안동시 당북동 119-13
출생지 : 경북 안동시
생년월일 : 1933 년 04 월 20 일
성별 : 남

직업 : 경찰관, 차관
집주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61 [120-190]
집전화번호 : 02 -364 -2828
종교 : 불교
혈액형 : A 형
취미 : 등산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명	비 고
-1954	안동사범학교		
-1958	건국대	정치외교학	정치학사
-1968	건국대대학원		석사
-1970	서울대신문대학원		수료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1961-	치안본부 정보과 근무
1969-1975	치안본부 경무과 및 서울시경 교통과장
1975-	남대문 경찰서장
1976-	치안본부 정보 1 과장
1980-1981	경북도경 국장 겸 대구시경 국장
1982-	해양경찰대장
1983-	치안본부 제 4 부장
1984-1986	서울시경 국장
1986-1987	제 10 대 치안본부장

성명 : 이영창 (李永昶) LEE,YOUNG-CHANG
본관 : 고성
본적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259
출생지 : 경북 청도
생년월일 : 1932 년 12 월 25 일
성별 : 남

직업 : 국회의원, 차관, 경찰관, 국영기업인
 기관/직위 : 민자당 국회의원
 직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06 호 [150-702]
 직장전화번호 : 784 -2182
 집주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4-34 [121-240]
 집전화번호 : 324 -3886
 종교 : 기독교
 혈액형 : A 형
 취미 : 사색, 독서, 등산
 특기 : 음악감상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명	비	고
1950-1953		경북고							
1954-1958		동국대법정대			법학			법학사	
1961-1962		오하이오주립대학	OHIOSTATEU.		경영학			수학	
1966-1968		연세대경영대학원			경영학			경영학석사	
-1987		대만.국립중흥대학						명예법학박사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1959-		경위(경찰간부 후부생 11 기)	
1960-		경찰대 교관	
1963-1967		서울시경	
1968-		내무부 치안국 기획과	
1970-		경북 봉화경찰서장	
1972-		치안국 기획담당관	
1974-		용산경찰서장	
1976-		서울시경 정보 1 과장	
1978-1979		경찰대 부학장(경무관)	
1979-1981		주일본 대사관 내무수석 주재관	
1981-1982		치안본부 수사 2 과장	
1982-		경북도 경찰국장	
1982-1983		대구시경 국장 겸임	
1983-1986		부산시경 국장(치안감)	
1986-1987		서울시경 국장(치안정감)	
1987-1987		제 11 대 치안본부장	
1987-		대한경무협회 이사장	
1987-		미국 타운슨주립대 객원강사	
1990-1991		주택공사 이사장	
1991-1992		민자당 정책평가위원	

- 1992- 제 14 대 국회의원(민자,경산.청도)
- 1992- 민자당 정세분석위원
- 1992- 국회 상공상임위원
- 1992- 국회 예결위원
- 1994-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

<< 주요 저서 >>

- 70 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 경찰용어집
- 부조리

성명 : 안상수 (安商守) AHN,SANG-SOO
 본관 : 순흥
 원적 : 경남 함안군
 출생지 : 경남 마산
 생년월일 : 1946 년 02 월 09 일
 성별 : 남

직업 : 변호사
 기관/직위 : 안상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장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 B/D 동관 405 호 [137-070]
 직장전화번호 : 02 -533 -1066
 집주소 : 서울 강남구 자곡동 235-7 [135-200]
 집전화번호 : 02 -226 -7701
 종교 : 없음
 혈액형 : A 형
 취미 : 등산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명	비 고
1961-1964	마산고		
1964-1968	서울대법과대	법학	법학사
1975-1977	사법연수원		수료
1994-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1975-	제 17 회 사법시험 합격
1978-1980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80-	대구계명대 강사(형법)
1980-198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82-1985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5-198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7-1987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후 사직
- 1987- 변호사 개업
- 199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1992- 경향신문 객원 논설위원
- 1993- 서울변화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1994- 부산일보 시평 연재
- 서울변화사회 당직변호사 운영위원장,외국인노동자 보호위원장
- 경실련 중앙위원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주요 저서 >>

- 물권법, 1975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1994

성명 : 황적준 (黃迪駿)

생년월일 : 1947 년 09 월 21 일

성별 : 남

직업 : 교수

기관/직위 : 고려대 교수

직장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 가 1 [136-701]

직장전화번호 : 02 -927 -5111

집주소 : 서울 성동구 광장동 264-1 유천빌라 3-202 [133-210]

집전화번호 : 02 -458 -2281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명	비 고
-	고려대	의학	
-	고려대대학원	의학	석사
-	고려대대학원		박사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	고려대 의과대 의학과 교수
1994-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장

성명 : 김승훈 (金勝勳) KIM,SEUNG-HOON

출생지 : 평남 진남포

생년월일 : 1939 년 07 월 06 일

성별 : 남

직업 : 신부

기관/직위 : 천주교왕십리성당 주임신부

직장주소 : 서울 성동구 홍익동 236 [133-030]

직장전화번호 : 296 -2454

<< 학력 사항 >>

기간	학교명	전공명	비고
-1962	가톨릭대	신학	신학사
1962-	사제 서품		
1972-	천주교 신림동성당 주임신부		
1976-1989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1977-	천주교 동대문성당 주임신부		
1988-	천주교 왕십리성당 주임신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성명 : 김성기 (金聖基) KIM,SEUNG-KY

본관 : 김해

원적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 가 11

본적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 가 11

출생지 : 서울

생년월일 : 1935 년 08 월 16 일

성별 : 남

직업 : 변호사, 장관, 국회의원, 국영기업인

기관/직위 :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직장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 61-1 코리아나호텔 908 호 [100-101]

직장전화번호 : 02 -738 -0016

집주소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9 [120-180]

집전화번호 : 02 -336 -2255

종교 : 불교

혈액형 : B 형

취미 : 골프

<< 학력 사항 >>

기간	학교명	전공명	비고
-1954	서울고		
-1958	서울대법과대	법학	법학사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1956- 제 8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7- 군법무관
196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61-1970 부산.청주.대구.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0-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71-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수사국 제 4 과 과장
1973-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제 2 과 과장
1974-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1975-1979 광주.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7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80-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1981-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198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82-1985 제 3 대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1985- 민정당 국책조정위원회 상근위원
1985-1985 제 12 대 국회의원(민정,전국)
1985-1987 제 35 대 법무부 장관
1987- 고시동지회 회장
1987- 민정당 국책평가위원
1987-199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1991-1993 한국주택은행 이사장
1991-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성명 : 서동권 (徐東權) SEO,DONG-KOWN

본관 : 달성

본적 : 경북 영천군 화북면 자천동 1634

출생지 : 경북 영천군

생년월일 : 1932 년 10 월 30 일

성별 : 남

직업 : 변호사 , 장관 , 안기부장

기관/직위 :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

직장주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로얄 B/D 1410 호 [110-071]

집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3-54 [121-210]

집전화번호 : 02 -336 -9988

취미 : 바둑

<< 학력 사항 >>

- 경북고

-1957 고대법정대

법학사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 1956- 제 8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6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196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65-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 1967-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 196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6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73-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197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78-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80-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1980- 법무부 송무담당관.대검찰청 검사
- 1981- 법무부 보호국장
- 1981-1981 제 24 대 법무부 차관
- 1981- 대검찰청 차장검사
- 198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1985-1987 제 20 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 1987- 민정당 국책평가위원
- 1987-1989 변호사 개업(서울)
- 1989-1992 제 7 대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 1992- 청와대비서실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 1993-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서울)

<< 주요 저서 >>

- 한국 검찰사

P 5
30
57

성명 : 정구영 (鄭錄永) JEONG,KU-YEONG

본관 : 연일

원적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881

본적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50

출생지 : 경남 하동

생년월일 : 1938 년 11 월 12 일

성별 : 남

직업 : 문화.예술단체의장 , 법조인 , 장관

기관/직위 : 진로문화재단 이사장

직장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3 [137-070]

직장전화번호 : 02 -520 -3554

집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113-205 [135-110]

집전화번호 : 02 -543 -0520

혈액형 : A 형

취미 : 테니스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명 비 고

1954-1957 부산고
 1957-1962 서울대법과대 법학 법학사
 1971-1973 연세대경영대학원 경영학 경영학석사

<< 경력 사항 >>

기 간 내 용

1961- 제 13 회 고시사법과 합격
 1962- 육군 법무관
 1965-1968 서울지검 검사
 1968-1970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
 1970-1972 법무부 법무실 검사 겸 서울지검 검사
 1972-1975 서울지검 검사
 1975-1977 대검 검찰연구원
 1977-1978 법무부 송무과장 겸 서울고검 검사
 1978-1979 법무부 법무실 송무 1 과장
 1979-1980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 1 과장
 1980-1981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 3 부장
 1981-1981 법무부 송무담당관(검사장)겸 대검 검사
 1981-1982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1982-1985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 검사
 1985-198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85-198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87-1989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89-1990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990-1992 제 23 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1993- 진로문화재단 이사장